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16)

## 도고마성(道高魔盛)

도가 높으면 마귀가 성해진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도로 도를 많이 닦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힘 잡을 데가 없는 듯싶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가 강론한 날에 동태사에 있는 부도(浮屠)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훌륭한 황제가 있고, 또 불경을 가지고 강론까지 했는데, 부도에 불이 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할 때에 그는 스스로 반성을 해야 했다.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이고 최고의 통치자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것조차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관리 책임이 허술하였다고 반성하기보다는 마귀의 짓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도(道)가 높으면 마귀(魔鬼)가 성하고, 선(善)을 행하면 장애(障礙)가 생기니,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지난날보다 두 배로 늘리도록 하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도는 높다고 자랑하며 마귀가 장난질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남 탓을 한 것이다.

양무제는 드디어 고집을 부렸다. 불타버린 부도보다 두 배나 큰 12층짜리 부도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2년이 되어 거의 완성될 즈음에 북쪽 북위에서 내려온 후경(侯景)이 군사를 일으켜서 황제 소연을 궁궐에 유폐시켰다. 그는 갑히 있는 몸이라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굽다 못해 입이 쓰자 꿀 한 술 달라고 해도 후경은 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궁궐에서 죽어 죽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양무제의 비극은 아마도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자기에게 다가온 실패를 마귀의 탓으로 돌린 오만함은 그를 굽어 죽게 만들었다. 그 비극은 후경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는 도(道)가 높다고 확신하고 마귀를 이기겠다고 한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이다. 반성 대신에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이 그를 굽어 죽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양무제는 화를 냈다. ‘짐은 3경(更)에 나가 일을 처리하면서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이 적으면 오전에 마칠 수가 있었고, 일이 많으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서야 바야흐로 식사를 하였으며, 하루에 항상 한 끼를 먹었고 낮에도 그러하였고 밤에도 그러하였다. 옛날에 허리둘레가 10둘레를 넘었는데 지금은 마르고 줄어들어 겨우 2척(尺)이 좀 넘는데, 예전의 허리띠가 아직도 있으니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랑하였다.

양무제는 하침 같은 사람의 비평을 탁상공론으로 치부하였다. 그리고 양무제는 그 스스로 동태사(同泰寺)에 가서 삼해경(三慧經)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강론까지 하였다. 황제이면서 불교의 경전을 강론할 정도로 도가 높았던 것이다.

그는 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무려 47년간이나 있었으니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업적을 가능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나라의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의 연도(年道)에서 발견된 벽돌에도 남아있다. 여기에서 낙서로 쓰

##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 여섯 번째 모임



권계동 고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6개 파종회장 친목회가 안동시 옥동 '개성집'에서 개최하였다.

수록 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모임 자리를 마련한 권인탑 고문도 인사말에서 “경자년 들어서 첫 모임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며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계동, 권인탑 두 고문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건배제의를 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호박죽, 미역국을 먹은 뒤 명태조림을 곁들여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이 자리에서 권인탑 고문은 10년 전에 생산된 안동소주 2병을 가져와서 짜릿한 소주 맛을 보여주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자유토론에서 권숙동 종친회장은 “오는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계동 고문은 인사말에서 “파종회장 친목회 모임이 날이 같

여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나면 원로님을 비롯하여 6개 파종회장, 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출마에 관하여 논의를 하자”고 제안, 참석자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앞으로 모임 날짜를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올해 시조묘소 진입로를 확장하고 아울러 진입로에 블록을 깔기 위해 설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앞으로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권무탁 겸교공파종회장(대종회 부회장, 영주 대영중·고교 이사장)을 입장시킬 예정이다.

권영건 파종회장은 오는 2월 22일 가칭 파종회장 친목회 일곱 번째 모임을 주선하며 장소는 추후 통보해 주기로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 제26회 복야공파청장년회 정기총회 개최

제26회 복야  
공파청장년회  
(회장 권영직)  
정기총회가 1월  
6일 오후 6시 안  
동시 대안로(태  
화동) '장자방'식  
당에서 개최되  
었다. 이날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권계동, 권오수, 권중준 세 고문 등 50  
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견례, 회장 인사, 감사보고, 경과보고,  
임원선출,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  
졌다.

권영직 청장년회장은 인사말에서 “2  
년 동안 아무탈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  
칠 수 있는 것은 족친 여러분들이 도와  
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파조 단  
소 풀세기 등 여러 가지 추진한 일들을

회고했다.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경자년은 쥐의 해로 쥐는 영리하고 예민한 동물”이라며 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후 “우리 복야공  
파가 청장년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항상 단합하고 문  
중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권숙동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정기  
총회에 초대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오는 2월 15  
일 오전 10시 안동초등학교 체육관에  
서 안동권씨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데  
구름처럼 많이 참석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권오국 전  
교는 축사에서 “안동권씨 15개 파 가문  
에 복야파가 청장년회를 조직하고 있  
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여러분 덕분  
에 전교가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협조  
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택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어른들을 향하여 큰절을  
올린 뒤 “안동권씨의 후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가 끝나자 권태열 감사가 감사  
보고를 하였으며 권기철 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임원선출에서  
권기운씨를 복야공파 청장년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권신임회장은 취  
임 인사말에서 “앞으로 청장년회를 위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동경안고, 안동대학교 행정대학원  
을 각각 졸업하고 전 안동시 의원을 역  
임했으며 현재 솔밭 영농조합법인 대  
표를 맡고 있다.

회의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권오를  
무소속 예비후보는 어른들한테 큰절  
을 하고 나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  
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  
겠다”고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종원들은 정답을 나  
누면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모두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가나기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 세무법인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준 (權赫祿)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 &lt;본사&gt;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준, 정부해

## &lt;동부지점&gt;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률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 &lt;강원지점&gt;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